

박경리 선생이 우리은행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을 기억합니다.

그 동안 과연 세월은 흘렀는가. 흘러갔는가.

「토지」 / 박경리

# 박경리

##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

우리 민족 역사의 반세기 흐름을  
글이라는 방식으로 고스란히 남겨 온 박경리 선생처럼

우리은행은 금융이라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 
우리를 지켜왔고, 지켜나가겠습니다.

우리은행 127년의 발자취, 그 속에 함께 했던  
박경리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합니다.

\*故 박경리 선생은 1954년 우리은행(옛 상업은행 용산지점)에서 근무하였습니다.

